

동해해수청, 여름철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실시

- 태풍·집중호우 대비 항로표지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와 여름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항로표지시설 특별점검을 6월8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태풍 내습과 해상 기상 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해양레저 및 관광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동해안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관내 항로표지시설 18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묵호·주문진·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 전망대를 비롯해 안전난간, 배수로 등 이용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 중 보완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대수선 공사에 반영하여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점검을 통해 동해안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양활동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이유경 (033-520-6279)